

# 철강

## 붉은 수돗물 사태에 뜨거워지는 강관

### 오래된 기반시설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그리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970~1980년대에 주로 만들어졌다. 송유관은 시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 비율이 98%에 달하고, 상수관로와 하수관로는 그 비중이 각각 35%, 40%에 달한다.

가스관과 열수송관 등 지하관로는 관로 손상 및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와 누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까지 고려하면 연간 13조원(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 중 정부 비중 61%)의 투자가 예상된다.

### 답답한 강관, 숨통 트이나

미국의 적극적인 셰일가스 개발은 국내 강관기업의 유정용(OCTG) 강관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수출 규모는 연간 106만 톤에 불과하다. 한편 가스관 연장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역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결국 강관 수요는 단기간 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투자는 새로운 강관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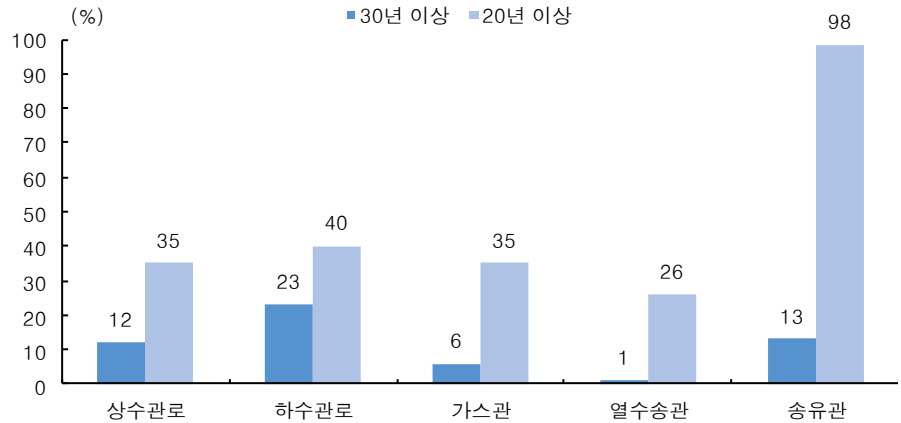
지하관로 중 상하수관로, 가스관, 송유관에 사용되는 강관의 제조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용도에 따라 필요한 사이즈가 달라질 뿐이다. 아직까지 기반시설 노후화 투자와 관련해 세부 분야 등 정확한 분배와 입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투자규모와 일정, 그리고 조달 자재에 대한 조건에 따라 강관 기업 중 실제로 수혜를 입는 기업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향 강관 수출 쿼터제 등의 이슈로 강관 기업의 이익 성장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내 기반시설 노후화 투자 등 수요 증가는 강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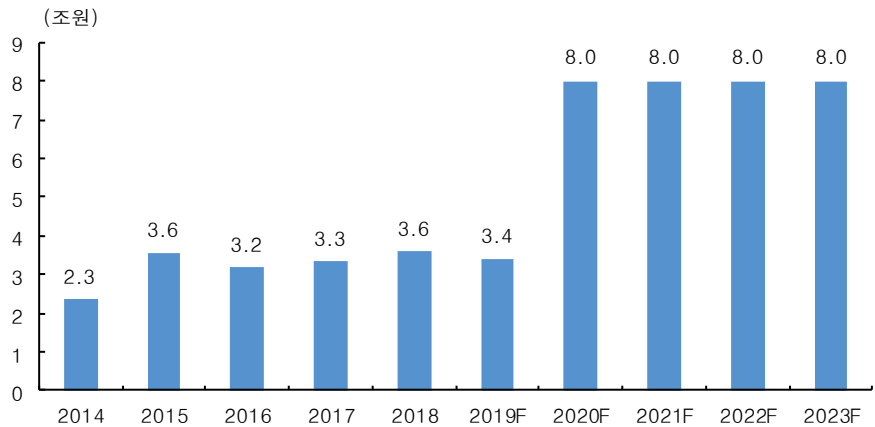
sky\_j@truefriend.com

[그림 1] 지하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정부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규모



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4천억원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한국투자증권

<표 1> 주요 강관 종류와 제조방식과 사용처

(단위: 천톤, %)

강관	주요 제조방식	사용처	생산량	
			천톤	비중
배관용	ERW, 스파이럴, 롤벤딩, 무계목강관	증기, 물, 가스, 공기 등의 이송	1,150	20.4
구조용			2,375	42.1
	기계구조용 ERW, 프레스, 롤벤딩, 무계목강관	기계, 자동차 등의 기계부품에 사용		
	일반구조용 ERW, 스파이럴, 롤벤딩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		
	강관 말뚝 ERW, 스파이럴, 롤벤딩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의 기초용 강관		
	비닐하우스용 ERW	비닐하우스		
송유관용	ERW, 프레스, 롤벤딩, 무계목강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1,786	31.7
유정용	ERW(중소+대), 무계목강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용		
열전달용	ERW, 무계목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13	0.2
전선관	ERW	전기배선 보호	39	0.7

자료: 세계철강협회, 한국투자증권

〈표 2〉 국내 강관업 생산능력

(단위: 천톤)

	ERW		SPIRAL	롤벤딩	프레스벤딩	무계목강관	STS 강관	생산능력
크기	중소구경	대구경	대구경	대구경	대중소구경		대중소	
원료	열연코일	열연코일	열연코일	후판	후판	빌렛, 환봉	STS	
용접장식	전기저항용접	전기저항용접	SAW(아크용접)	SAW 방식	SAW 방식		다양	
용접봉	필요무	필요무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세아제강	1,000 (1/2"~24")		150 (16~158")	500 (20~56")				1,650
현대제철	1,030 (~26")							1,030
휴스틸	700	300 (8"~24")					40	1,040
넥스틸	276 (2~5")	440 (8~16")						716
동부제철	200 (8~20")		200 (20~200")					400
현대 RB				232 (20~300")	122 (16~65")			354
하이스틸	160 (24")			60 (~60")	28 (가동초기)			248
동양철관			30 (20~100")	160 (18~118")	50 (20~118")			240
금강공업	160							160
한국주철관공업			65					65
세아창원특수강						24		24

자료: 한국철강협회, 각 사,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9년 6월 20일 현재 현대제철, POSCO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POSCO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 비율 (2019. 3. 31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79.7%	20.3%	0%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